

빛가람종합병원, 2년째 국비 57억 지원 호소

2018년 전남도·나주시와 협약...道 “특별법 따라 보조금 지원을” 국토부 “예산 시기 지나·전례없어 거절”... 병원측, 권익위에 민원

전남도·나주시와 투자 협약을 거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한 경영진이 개원 2년이 넘도록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 말을 믿고 315억원을 투입해 병원 개원 등 투자협약에서 정한 약속을 모두 지켰는데, 정부가 지원을 거절하면서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

16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빛가람종합병원 측은 2018년 7월 나주시, 전남도와 3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병원 측은 2019년까지 315억원을 투자해 종합병원으로 규모를 키우고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171명도 약속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측은 2020년 4월 종합병원을 개원했고 산후조리원도 갖췄다. 협약서에서 약속한 것보다 많은 2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협약서대로 사업이 진척되자 전남도는 2019년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국고보조금 57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공문에서 “혁신도시 정주 여건에 가장 필수적인 종합병원은 다수의 의료인 등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고 수익구조가 쉽지 않아 시설 운영이 매우 어렵다”며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인구 3만명(2022년 1월 기준 3만 9000명)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어 “민간이 혁신도시에 병원을 지을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며 “빛가람혁신도시는 2017년 국토부 조사 결과 정주여건 만족도가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9위로 조사됐으며, 한전 직원 1813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병원 개설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전남도는) 민간을 설득해 종합병원을 건축 중이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45조의 2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거절하며 2020년과 2021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종합 검토를 거친 결과 국비 지급은 적절치 않다는 게 당시 국토부 판단이었다. 이에 병원 측은 전 후 사정을 담아 선처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10일 “현시점에서 피신청인(국토부)의 주장이 위법·부당하

다 보고는 어렵다”면서 “혁신도시 정주 여건에 가장 필수적인 종합병원은 인구 3만의 도시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해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협조 요청하겠다”고 회신했다.

병원 측은 “법에서 정한대로 사업계획서를 전남도가 분석한 뒤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 114억원(국비·지방비 각 57억원)을 신청했으나 국토부는 예산 시기가 지났다,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매년 점검하는 국토부는 상황을 알면서도 시종 손 놓고 있다”며 “국비 지원 요청이 왔을 때는 처음 듣는 민원처럼 거절했느냐. 이제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종합 검토를 거쳐 국비 지원이 거절된 사안이다. 해당 병원은 이미 준공됐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청년부부 4400쌍에 결혼축하금 200만원씩 준다

전남도가 지난해 광역단위 최초로 도입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올해는 4400부부로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부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한 사람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청년부부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혼인신고 전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했지만, 올해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된다.

또 지난해는 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했지만, 올해는 혼인신고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보육료 한도액 인상 학부모 추가 부담액 전액 지원

전남도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인상한 대신 학부모의 추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7일 “보육 관련 전문가,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2022년 제1차 전라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22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정책 시행계획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보다 2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 월평균 8만3000원은 전남도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인 입학 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 비용은 소비자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전남도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정부 지원 보육료 외 학부모 9천여 명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반별 운영 지원, 보육 교직원 복지수당 신설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올 공무원 451명 선발 AI 핵심 데이터직 첫 채용

광주시는 “올해 시 116명, 자치구 335명 등 공무원 451명을 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에 8~9급 18개 직렬 432명, 하반기에 7급과 연구·지도사 등 5개 직렬 19명을 채용한다. 직군별로는 행정 331명, 기술 118명, 연구·지도사 2명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국제 양공대회 개최 준비, 도심 융합 특구 조성, 감염병 관리 등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전문가 수급을 위해 데이터직을 채용한다.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은 전국 동시에 진행한다.

코로나19 대응 시급성을 고려해 간호직 8급은 4월 30일, 간호직을 제외한 8-9급은 6월 18일, 7급 등은 10월 29일 시험을 치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이날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듭시다” 17일 광주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아이날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카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직장맘·대디 노동문제 원스톱 해결 호응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노무상담·권리구제 등 지원

광주시가 직장맘·대디 노동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직장맘·대디의 노동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모·부성 노동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모·부성권 침해가 확인되는 심각한 사안은 심층 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부성관련 노동상담을 1656건 진행했

며, 본부 소속 상근 노무사가 직접 관련 제도와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부는 그동안 축적한 생애주기별 모·부성 노동 사례 분석을 통해 임신부 직장맘, 학부모 직장맘·대디, 돌봄수행 직장맘·대디가 직장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식을 전달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본부는 이 밖에도 모부성 노동상담을 기초로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지원과 육아가근로시간단축

사용 근로자 연차보상금, 초동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공사업장 장려금 운영 사업, 임신부를 위한 파면한 패키지지원, 임신부 고용유지지원금, 등 모·부성권 보호를 위한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상담은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직장맘·대디라면 전화(062-613-7982), 전자우편(ara611923@korea.kr),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사용으로 원거리로 근무자가 변경되거나 퇴직금·임금 등에 불이익이 있는 등 근로조건이 불리한 직장맘·대디는 권리

구제 협업 노무사의 ‘무료 권리구제’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지원은 노동청 신고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분쟁 사건 대리는 물론 노동분쟁 도중 사업주와의 갈등조정과 화해 지원 등 노무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법률서비스 전반을 지원한다.

광주 직장맘·대디 중 월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모·부성권 관련 노동분쟁으로 법률대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명순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모·부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당당하고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원스톱 노무상담과 권리구제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노동권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